



호킹, 우주에 잠들다

**천재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 타계...향년 76세
17살에 옥스퍼드대 입학·21세 루게릭병
블랙홀 우주론·양자중력 등 연구 기여**

루게릭병을 극복하고 세계적 물리학자 반열에 오른 스티븐 호킹 박사가 76세를 일기로 타계했다고 AFP. 로이터 통신 등 외신들이 14일 보도했다. 호킹 박사의 자녀들은 성명을 통해 부친의 별세 사실을 알리고 "그는 위대한 과학자이자 비범한 인물이었다"며 "그의 업적과 유산은 오래도록 남을 것"이라고 밝혔다. 1942년생인 호킹은 루게릭병을 앓으면서도 블랙홀과 관련된 우주론과 양자 중력 연구에 기여. '죽음과 장애 극복의 아이콘'으로 떠올랐다. 학계에서는 뉴턴과 아인슈타인의 계보를 잇는 물리학자로 불렸다. 그는 '우주의 완전한 이해'를 목표로 삼아 대우주에 대한 상대성 이론과 소우주에 관한 양자이론을 통합하는 데 몰두했다. 1959년 17살의 나이로 옥스퍼드대에 입학한 그는 21살에 전신 근육이 서서히 마비되는 근위축성측삭경화증

(ALS). 이른바 '루게릭병' 진단을 받았다. 의사들은 그가 불과 몇 년밖에 살지 못할 것이라고 예상했지만, 호킹은 휠체어에 의지한 채 컴퓨터 음성 재생 장치 등의 도움을 받아 연구활동을 이어왔다. 1965년 케임브리지대 대학원에 진학해 박사학위를 취득했다. 뛰어난 연구성과로 연구원과 교수 등을 거쳐 1979년부터 2009년까지 케임브리지대 수학 석좌교수를 역임했다. 특히, 1988년 발간한 대중 과학서 '시간의 역사'는 세계적인 베스트셀러로 등극해 세계적으로 1000만 권 이상 팔린 것으로 알려졌다. 학문적 업적 외에도 '스타트랙'과 '심슨가족' 등 인기 TV 프로그램에 출연하거나 광고 목소리를 제공 하는 등 다양한 활동을 해왔다. 그는 2006년 자신의 병에 대해 "일찍 죽을 것이라는 예상 속에 내 인생의 대부분을 살았다"면서 "그래서 시간은 나에게 언제나 귀중하다"고 말한 바 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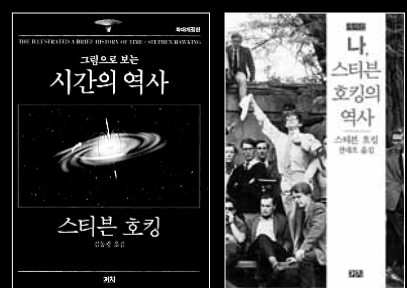
다. "하고 싶은 게 많고, 시간을 낭비하는 것을 싫어한다"는 호킹은 지역의 자선 버스 캠페인에 참여하고 영국 국민건강보험(NHS) 민영화에 반대하는 등 사회문제에도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다. 호킹 교수는 생전에 두 차례 한국을 방문했다. 1990년 9월 국내 주간지의 초청으로 3박 4일 일정으로 방한. 서울 대와 신라호텔에서 '우주의 기원'과 '블랙홀과 아가우주'를 주제로 강연했다. 이어 2000년 8월말부터 9월초까지 10박 11일 일정으로 한국을 다시 찾아 김대중 당시 대통령을 만나고 청와대에서 '간략히 살펴본 우주'(Universe in a nutshell)라는 주제로 강연했다. 로이터 통신은 호킹에 대해 "자신은 조기 사망의 가능성이라는 그림자 아래에 일하면서도 삶의 가장 복잡한 질문을 설명하려 했던 인물"이라고 평했다. 동료 과학자들은 그를 '과학에 대한 새로운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인물'이라고 불렀으며, 그는 끊임없는 도전 속 에 수명을 연장해가며 심각한 장애일 지라도 생을 멈추게 할 수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 냈다고 AP통신은 전했다. /연합뉴스

호킹, 다시 읽자

타계 소식에 국내 관련 도서 판매 30배 급증

세계적인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 박사의 타계 소식에 국내에서도 그와 관련된 도서 판매가 급증했다. 교보문고는 이날 오후 5시 기준 호킹 관련 도서들의 판매량이 전날보다 30배 상승했다고 밝혔다. '전날 4권 판매된 호킹 관련 도서들은 120권 판매됐다. 대표작으로 꼽히는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까치)가 60권가량 팔렸으며, 학습만화 'Who? 인물 사이언스 스티븐 호킹'(다산어린이)을 비롯한 어

린이용 책의 판매량도 늘었다. 에스24에서도 판매량이 이날 오후 5시 기준 전날보다 약 47배 늘어났다. 가장 많이 팔린 책은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였다. 박형욱 에스24 자연과학 MD는 "호킹 박사의 타계 소식을 접하고 그의 과학적, 인간적 이야기를 다시 만나고 싶어하는 독자들이 많이 늘어난 것 같다"고 말했다. 호킹의 책은 국내에도 여러 권 번역돼 있다. /연합뉴스



그러나 내용이 쉽지 않은 탓에 쉽게 풀어쓴 책들이 상당수고 어린이용 책들도 많다. 저자전 '나, 스티븐 호킹의 역사'와 '그림으로 보는 시간의 역사', '짧고 쉽게 쓴 시간의 역사', '호두 껍질 속의 우주' 등이 출판사 가치를 통해 출판됐다. /연합뉴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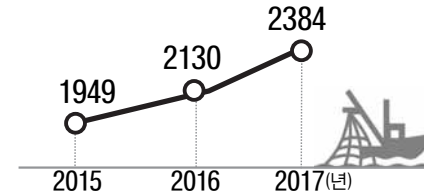
전남 '억대 漁富' 3년 연속 증가

전년비 10.2% 늘어난 2384가구... 전체 어가의 12.6%

억대 소득을 올린 전남 어업인 가구가 3년 연속 증가, 지난해 2384가구에 달했다. 이는 전년보다 10.2% 늘어났으며, 전체 어가의 12.6%에 달했다. 14일 전남도에 따르면 지난해 전남에서 1억원 이상 소득을 올린 어업인 가구는 모두 2384가개로 전체 1만8601가개 가운데 12.6%를 차지했다. 역대 소득 어업인 가구 수는 2015년 1949어개, 2016년 2130어개로 늘어난 3년 연속 증가세를 보였다. 2년째 22.3%(435어개) 늘었다. 전남도는 수산물 생산량 증가와 김 수출 호조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했다.

1억원 이상 가구 가운데 소득 규모별로는 1억원 이상~2억원 미만인 1429어개(60.9%), 2억원 이상~5억원 미만인 739어개(31.4%), 5억원 이상 180어개(7.7%)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전복·굴 등 패류 양식 768어개로 가장 많았으며, 김·미역 등 해조류 양식 616어개, 어선 어업 298어개, 가공·유통 293어개 등이었다. 연령별로는 50~60대 이상이 70% 가까이 차지했다. 지역별로는 완도 603어개, 진도 373어개, 해남 313어개, 여수 276어개, 신안 260어개 순이었다. 특히 강진군은 2016년 한 곳도 없었으나 지난해 45어개로 가장 많이

■전남 1억원이상 고소득 어가 현황 (단위:어개 수)



늘었고, 신안(42), 해남(33), 고흥(31), 여수(25), 무안(19)이 뒤를 이었다. 양근석 전남도 해양수산국장은 "친환경 고부가가치 양식 품종을 육성하고 첨단 양식 기술을 도입해 수산업 경쟁력을 키우겠다"며 "기후변화에도 실효성 있게 대응해 어가 소득을 높여겠다"고 말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마가렛 명예 전남도민 됐다

'소록도 천사' 마리안느 스티프(85)와 마가렛 피사레(84)이 명예 전남도민이 됐다. 전남도의회는 14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소록도 천사'로 불리는 마리안느·마가렛 간호사와 손시엔위(孫善宇) 주 광주 중국 총영사를 명예도민으로 선정하는 동의안을 의결했다. 마리안느는 1962년부터 43년간, 마가렛은 1966년부터 39년간 소록도에서 간호사로 자원봉사하며 한센인들을 위해 헌신적으로 사랑과 봉사, 나눔을 실천했다. 또 본국인 오스트리아에 후원을 요청해 각종 의약품, 생활용품 등을 지원하는 등 한센인 후생복지 향상에도 기여했다. 28~29살에 소록도에 왔던 두 간호사는 청춘을 소록도에 모두 바치고 70~71살 '할매'가 돼 고향으로 돌아갔다. 전남도는 "두 분은 40여년간 소록도에서 한센인 치료와 사회복귀를 위해 자원봉사해 도민의 건강증진과 사회공헌에 크게 기여했다"면서 "헌신적으로 봉사하는 삶



을 살아 도민들에게 깊은 감동을 주고 삶의 가치를 깨닫게 해주는 등 올바른 정서 함양에 크게 이바지 했다"고 설명했다. 손시엔위 중국 총영사는 2016년 5월 부임 이후 전남도와 중국 간 소통·협력, 경제교류 강화, 전남 농수산물품 중국 홍보 등 공로를 인정받았다. 전남도는 손시엔위 총영사에게는 이달 중, 마리안느와 마가렛에게는 소록도병원 102주년을 맞는 5월에 명예도민증을 전달하기로 했다. /박정욱기자 jwpark@kwangju.co.kr

"흑산공항 연내 착공" 전남도의회 결의안 채택

전남도의회는 14일 제320회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국토 균형발전을 위한 흑산 공항 건설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결의안에는 환경 문제 착공이 지연된 흑산 공항 건설이 지역 최대 국책사업이라는 점을 들어 조속한 국립공원 계획 변경 심의와 연내 착공을 촉구하는 내용이 담겼다. 결의안을 대표 발의한 김기태 의원은 "해상 국립공원 가치와 기능을 보존한다는 대책 마련은 당연한 일이지만, 흑산 공항 건설 또한 국가 책무이자 국민에 대한 약속"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주민 생활 편의 증진, 해양관광 활성화, 지역 균형발전 전을 위해 공항은 조기 건설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전남도의회는 결의안을 국회, 환경부, 국토교통부에 전달할 예정이다. 흑산공항 건설은 2021년 개항을 목표로 신안군 흑산면 예리애 사업비 1835억원을 들여 50인승 이하 소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규모로 추진됐다. 그러나 2016년 11월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다도해 해상 국립공원 공원계획 변경심사에서 조류 충돌 가능성과 공항 임지 대안 검토 등 보완을 요구하면서 제동이 걸린 상태다. 국토교통부는 2차에 보류됐던 국립공원계획 변경을 재보완해 지난해 말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에 제출했다. /박정욱기자 jwpark@

도농기원, 농촌교육농장 농업인교사 양성

전남도농업기술원은 농업인을 대상으로 농촌교육농장 교사 양성과정을 운영하고 14일 밝혔다. 도농기원은 농업인 53명을 대상으로 지난 12~13일 기초과정에 이어 다음달 25~26일 심화과정을 교육한다. 이 과정은 최근 농촌을 찾는 관광객과 체험객이 증가함에 따라 농촌교육농장인 소득 창출 사업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 전문농업인을 양성하는 교육이다. 농촌교육농장은 농업활동이 이루어지는 농촌의 인적·물적 자원을 바탕으로 학교교육과 연계해 운영되고 있다. 조동호 도농기원 자원경영과장은 "농촌교육농장 운영 농가들의 소득 창출을 위해 사업역량을 강화하고 자유농업 등 차별화된 체험프로그램을 전수하겠다"고 말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전국·임야
바로 삽니다, 오전개발 010-6838-1230

부실채권 못받은 돈 회수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서·운송료 차용증·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
녹취등 각종채권상당

▶ 절대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채무자 재산, 신용·주거래은행·차량등 파악
- 실거주지파악가능
- 법인회사 부도시 회수 가능
- 전국 68개 점포로 전국가능

▶ 국가신용관리사가 직접관리 ◀

선수금만 주고 돈도 못 받고 계신분들이 많으나 당사는 여러분의 재산을 회수한 후 수수료를 받고 있습니다. 당사는 내재산이다라는 마음으로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24시간 상담가능)

새한신용정보(주)
010-6833-1600
직통전화 062)513-4306

돈되는 NPL 투자비법과 경매

5기 수강생 선착순 모집

주식투자엔 연연하고 있습니까?
아직도 경매를 하고 있나요?

제로금리시대, 불안하나요?
퇴직이후가 걱정되나요?

이 시대 최고의 재테크!!
소액투자도 고수익을 볼.

무료 공개 강연 일시
• 조 선 대 : 3월 8일(목) / 주간 10시, 야간 7시
• 광주여대 : 3월 13일(화) / 주간 10시, 야간 7시

2018년도 1학기
조선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15일(목)
- 교육기간 : 2018년 3월 8일(목) ~ 2018년 6월 14일(목)
- 매주 목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조선대학교) 광주은행 004-107-000152
- 접수문의 : 062)230-7700~2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2018년도 1학기
광주여자대학교 평생교육원

- 모집기간 : 2018년 2월 1일(목) ~ 2018년 3월 20일(화)
- 교육기간 : 2018년 3월 13일(화) ~ 2018년 6월 19일(화)
- 매주 화요일 주간 10:00~12:00 야간 19:00~21:00
- 수 강 료 : 20만원(예금주:광주여자대학교) 광주은행 148-107-307803
- 접수문의 : 062)950-3583~5 상담지도교수 : 송용욱 010-9416-1200

금당공인중개사

저희는 매도·교환·개방 등의 물건을 구입합니다!

팬션·전원주택지

- 구례군 토지면 문수골 3683㎡ 투자성 총용 1억43천
- 곡성군 삼기면 대지와 전 681㎡ 광주서 30분 내 6천만원
- 원도 약산면 득암리 바다집 2481㎡ 민박집적합 분할가 2억4천

주택·임야·아파트

- 농성동 대지 156㎡ 집 96㎡ 1층전세 4천안고 1억4500
- 월산동 2층 상가주택 땅 106㎡ 건평 117㎡ 1억2500
- 월산동 소방도로코너 2층 상가주택 땅 93㎡ 집 94㎡ 1억2300
- 월산동 우체국부근 재개발추진지역 대지 294㎡ 주택2동 2억43천

투자·매도·교환

- 장성 북이면 수성리 전 2136㎡ 전원생활적합 4500만원
- 보성 최천면 동무리 계획관리지역 80718㎡ 녹지법집 한옥단지·팬션적합 14억 가격조정됨
- 순창군 북흥면 산 330248㎡(추월산) 3억5천
- 담양 금성면 봉서리 산 61492㎡ 귀촌생활용 3억
- 금곡로5가 대로변 북동상업지 2010㎡ 병원 오피스텔등 적합 52억
- 무안군 운남면 내리 전원주택 등 적합 5000㎡ 2억
- 해남군 회원면 영호리 전 1663㎡ 도로접 1억3천
- 화순 동면 장동리 땅 213평 건평 60 은행 1억5천 매도·교환 2억5천
- 제주도 서귀포시 발장 땅110여평 건물3층 65평형 엘리베이터 10억2천
- 월산동 무진중부근 원룸적합 379㎡ 소방도 접 4억천
- 충장동 5가 도로접 상업지 490㎡ 상가적합 7억6천
- 나주시 남평읍 오계리 833㎡ 참고등 적합 1억5백만원

상가건물

- 순천만 팬션 대매동 땅 332㎡ 건평 285㎡ 방 8년매출 1억선 은행 3억 매도 은행포함 6억7천 은퇴자 생활에 최적
- 충장동5가 바스도로 대지 265㎡ 건평 1001㎡ 10억5천
- 양동 모래·커피숍·노래방 대지 577㎡ 건평 1164㎡ 시설총용 12억
- 월산동 바스도로 대지 155㎡ 4층건물 263㎡ 임대 생활적합 3억7천

문의 222-4994, 010-2632-5659
서구한전, 농성초교옆문앞

태성공인중개사

상가 / 상가주택

- 치평동 5층 건물(보증금 1.7억 월990만) 매 25억원
- 금호동 7층 건물(보증금 5.4억 월1,300만) 매 32억원
- 용봉동 4층 건물(보증금 1억, 월45만) 매 17.5억원
- 하남동 4층 건물(보증금 6.2억 월2,200만) 매 53억원
- 산정동 2층 건물(보증금 2억 월1,100만) 매 27억원
- 월곡동 5층 건물(보증금 4억 월 540만) 매 25억
- 생암동 5층 건물(보증금 3억 월 1,580만) 매 43억
- 송정동 물류창고 대1,000㎡, 건 500㎡ 매 24억
- 나주시 성북동 1층상가 대 489㎡ 건 322㎡ 매 7억2천
- 양산동 원문 대 300㎡ 매 7억8천(보1억, 월4백만, 안집)
- 오선동(진곡산단) 대 785㎡ 건 600㎡ 매 21억(보2억, 월900만)
- 담양군 수북리 전원주택 대 506㎡ 건 96㎡ 매 3억5천

토 지

- 임암동 효천리지구 근생용지 320㎡ 매 10억5천
- 서구 금호동 자연녹지 1,250㎡ 매 20억(카센터, 물류 적합)
- 서구 서창동 대지, 전 1,780㎡ 매 13억5천
- 광산구 소촌동 자연녹지 3,800㎡ 매 2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비아동 자연녹지 6,130㎡ 매 37억(공업사 물류창고 적합)
- 광산구 우산동 상업지역 코너대지 대지 612㎡ 매 12억
- 광산구 운남동 대로변 자연녹지 2,100㎡ 매 32억(전시장 사육적합)
- 남평읍 상곡리 전.임야 9,240㎡ 매 8억4천(전원주택부지 적합)
- 도곡면 원화리 계획관리지역 내대지 5,355㎡ 매 33억(요양병원적합)
- 진원면 선적리 재개발부지 대지 830㎡ 매 2억2천
- 담양군 대전면 선성리 1층주거지역 전 1,637㎡ 4억6천(창고적합)
- 정읍시 신정동 전 3,300㎡ 매 4억5천(전원주택, 가든식당 적합)
- 고흥군 송림리 전 17,000㎡(약 5천평) 매 3.3㎡당 2십2만원 (토목공사원로, 바닷가까지, 남당동, 팬션, 카리번, 전원주택, 태양광적합)

매물 접수, 상담 환영
문의 010-5536-0382 정현철
광산구 장덕동 롯데마트 부근